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2009년 9월 넷째주

음악산업 주간동향 리포트



한국콘텐츠진흥원

What's Happening in Music Industry? [2009년 9월 넷째주]

9월 넷째주 음악산업 동향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공연보상청구권 징수단체 지정, 9/26일부터 본격 징수
- 한국에서의 첫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 '2009 글로벌 게더링' 성공리 개최
- 영국의 Virgin Media와 Universal이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실시 선언에 따라 음반회사의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모델에 대한 찬/반 논쟁 점화

콘텐츠 목차

1. 소비자 동향

1-1. 2009년 9월 2주차 음원 판매 현황

2. 산업 동향

2-1. 국내 최대 음악포털사이트 네오위즈박스 재상장

2-2.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공연보상청구권 징수단체 지정

2-3. 불법콘텐츠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10만 네티즌 서명 캠페인' 실시

2-4. 인디밴드 아폴로 18, 일본 레이블과 계약하고 일본 진출

2-5. 2009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2-6. 2009 글로벌 게더링 개최

3. 기술 동향

3-1. 차세대 음원과 미디어 기기 : 애플인 것과 애플이 아닌 것

3-2. Last.fm 미국 4개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 런칭

4. 정책 동향

4-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배포

4-2. '인디뮤지션발굴프로젝트 헬로루키 2009' 10월 공개오디션 실시

5. 해외 동향

5-1. 프랑스, '삼진아웃제' 수정법안 하원 가결

5-2. 음반회사의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모델 찬/반 논쟁 점화

5-3. 최대 Music SNS 사이트 중 하나인 MySpace, 최근 이용 감소 추세

5-4. 美 법원, 동영상 공유 사이트 저작권 침해 책임 없음 판결

※ 관련 기사 및 자료 목록

1 소비자 동향

1-1. 2009년 9월 2주차 음원 판매 현황

순위	멜론(9.6-9.12)		도시락(9.7-9.13)		엠넷(9.7.-9.13)		벅스(9.3-9.9)	
	전주 비 변동	곡명 - 아티스트						
1	—	Heartbreaker - G-Dragon	진입	Kiss - 산다라	진입	Kiss - 산다라	진입	사랑비 - 김태우
2	↑1	내 귀에 캔디 - 백지영	—	Muzik - 4minute	↑20	사랑비 - 김태우	↑1	Muzik - 4minute
3	↓1	Abracadabra - 브라운아이드걸스	↓2	Heartbreaker - G-Dragon	↓2	Heartbreaker - G-Dragon	↓2	Heartbreaker - G-Dragon
4	↑46	사랑비 - 김태우	↑29	사랑비 - 김태우	↓2	Muzik - 4minute	진입	사랑 참 어렵다 - 이승철
5	↑8	Muzik - 4minute	↑13	라차타 - f(x)	진입	심장병 - 아웃사이더	↓1	내 귀에 캔디 - 백지영
6	↑1	미스터 -카라	↓2	내 귀에 캔디 - 백지영	↑15	라차타 - f(x)	↓1	Vari2ty - 주얼리
7	↓3	Wanna - 카라	↓4	Hot Stuff - 다비치	↓3	내 귀에 캔디 - 백지영	↑33	라차타 - f(x)
8	↓3	거짓말 - 티아라	↓2	Vari2ty - 주얼리	↑40	사랑 참 어렵다 - 이승철	진입	내 사랑 내 곁에 - 최진이
9	진입	Kiss - 산다라	↓4	Abracadabra - 브라운아이드걸스	↓6	Hot Stuff - 다비치	↓7	초콜릿 - K.Will,마리오
10	↓4	I Don't Care - 2NE1	진입	심장병 - 아웃사이더	진입	30분전 - 이현	진입	Kiss - 산다라
11	↓3	소년이여 - G-Dragon	↓2	미스터 -카라	↓6	Vari2ty - 주얼리	진입	I Don't Care - 2NE1
12	↑4	Vari2ty - 주얼리	진입	30분전 - 이현	↓6	Abracadabra - 브라운아이드걸스	↓6	사랑이 뭐길래 - 미스에스
13	↑32	라차타 - f(x)	↓6	거짓말 - 티아라	↓6	사랑이 뭐길래 - 미스에스	↓5	Abracadabra - 브라운아이드걸스
14	↓4	Hello - G-Dragon	↓6	Wanna - 카라	↓5	미스터 -카라	↓7	피아니시모 - 체리필터
15	↓6	바래 - FT아일랜드	↓5	소년이여 - G-Dragon	↑20	I Don't Care - 2NE1	↓2	미스터 -카라
16	↓1	초콜릿 - K.Will,마리오	↓2	눈물도 아까워 - 나비	↓5	거짓말 - 티아라	진입	사랑한다는 말 - J
17	↓5	연애특강 - 마이티마우스	↓4	연애특강 - 마이티마우스	↓9	Wanna - 카라	↓2	안 출래 - 4minute
18	↑79	사랑 참 어렵다 - 이승철	↓6	I Don't Care - 2NE1	↓5	눈물도 아까워 - 나비	↓6	거짓말 - 티아라
19	↑36	내 사랑 내 곁에 - 최진이	↓4	피아니시모 - 체리필터	↓9	소년이여 - G-Dragon	↓8	생각이 나 - 부활
20	↓9	Indian Boy - MC몽	↓1	안 출래 - 4minute	↓3	피아니시모 - 체리필터	↓6	Wanna - 카라

('09.9월 2주차 멜론, 도시락, 벅스, 엠넷)

- G-Dragon의 'Heartbreaker'의 인기가 주춤한 가운데 2NE1의 멤버 산다라의 'Kiss'가 돌풍을 일으키며 신규 1위 진입
 - 산다라의 'Kiss'는 광고 삽입곡으로 별도의 방송활동이 불가함에도 도시락, 엠넷 차트 1위로 진입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예고
 - 산다라박이 소속된 여성아이돌그룹 2NE1은 이미 LG휴대폰 광고 삽입곡인 'Lollipop'으로 데뷔하여 데뷔곡으로 1위를 차지한바 있음
 - 최근 맥주 카스 광고에 등장했던 이민호의 'Extreme', 애니콜 광고 삽입곡 '아몰레드', LG텔레콤 광고에 등장한 클래지콰이의 'Wizard in OZ' 또한 인기를 모았음
 - 광고 삽입곡이 별도의 방송 활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차트 1위를 선점할 만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주 방송되는 광고의 특성상 광범위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김태우의 '사랑비', 4minute의 'Musik'이 인기
 - 군 제대후 컴백한 GOD 멤버 김태우의 신규 솔로 앨범 '사랑비'가 멜론 4위(전주비 46위 상승), 도시락 4위 (29위 상승), 엠넷 2위 (20위 상승), 벅스 1위 진입
 - 데뷔시 2NE1, 소녀시대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그룹 4minute의 새로운 싱글 Musik이 도시락, 벅스 2위를 유지하면서 인기
 - 지속적인 음악 스타일 노출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익숙해진 것으로 보임

순위	전주 비 변동	곡명
1	—	Heartbreaker - G-Dragon
2	재진입	돌아올지도 몰라 - 2PM
3	진입	심장병 - 아웃사이드
4	↑1	사랑비 - 김태우
5	진입	Kiss - 산다라
6	진입	I LOVE YOU - 나르샤
7	진입	사랑 참 어렵다 - 이승철
8	↓5	사랑이 뭐길래 - 미스에스
9	↓7	내 귀에 캔디 - 백지영
10	↑1	Muzik - 4minute
11	↓7	Hot Stuff - 다비치
12	진입	30분전 - 이현
13	↓7	생각이 나 - 부활
14	↓5	눈물도 아까워 - 나비
15	↓5	Butterfly - 러브홀릭스
16	↓2	사랑은 어쩔 수 없네요 - 윤상현
17	↓2	내 사랑 내 곁에 - 최진이
18	↓11	I Don't Care - 2NE1
19	진입	라차타 - f(x)
20	재진입	In The Club - 2NE1

(9/7~9/13일, 싸이월드 BGM 판매순위차트 기준)

- G-Dragon의 'Heartbreaker'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곡 대거 진입
 - 최근 리더 박재범의 탈퇴로 논란에 휩싸인 아이돌 그룹 2PM의 '돌아올지도 몰라'가 2위로 재진입
 - '돌아올지도 몰라'는 올 상반기 큰 인기를 모았던 'Again & Again'가 수록된 앨범에 포함된 미디움 템포 발라드 곡으로 2PM은 이 곡으로 별도의 방송활동은 하지 않았음
 - 현재 팀을 떠난 박재범의 귀환을 기다리는 팬의 바람이 뒤늦게 '돌아올지도 몰라'의 구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이승환의 곡을 리메이크한 아웃사이더의 '심장병'(3위), 이현의 '30분전'(12위) 등이 진입하면서 발라드 강세를 알림

2 산업 동향

2-1. 국내 최대 음악포털사이트 네오위즈박스 재상장

- '09년 9/14일 상장예비심사에 통과된 네오위즈박스, 9/24~25일 청약 실시하여 10/6~7일 경 상장 예정
 - 공모가 : 주당 9000원-1만1000원
 - 주관사 : 우리 투자 증권
 - 9/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첫 대규모 기업설명회 개최 예정
- 상장일이 결정됨으로써 그동안 네오위즈박스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 완전히 해소, 글로벌스의 재무구조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
 - 네오위즈박스는 '00.2월, 박성훈 현 글로벌스 사장에 의해 설립되어 2006년 코스닥상장사인 로커스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했으나 로커스의 잠재부실로 인해 박스를 합병하지 못하고 100% 자회사로 두는데 만족
 - 이후 '07.9월 창립자 박성훈 사장의 사임 후 게임사인 네오위즈 계열사 아인스 디지털에 박스뮤직 사이트에 대한 영업권을 매각
 - '01.2월, 알렉사리서치 조사결과 음악부문 세계 1위, 4월에 전체 사이트 가운데 28위 기록, '02년에 13위, '03년에 10위까지 올라섬
 - 현재 가입자 1000만명, 이용자 1500만명에 육박
 - 2007년 박스의 영업이익은 8억8600만원, 네오위즈에 인수 뒤 2008년 39억8200만원, 올 상반기 26억8600만원 기록
 -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던 기업이 영업권만 떨어져 나와 직상장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니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네오위즈박스의 성장 가능성 높이 평가

○ 벅스와 팬텀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의 상장 비교

- 2000년 4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IPO(기업공개)로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 중 최초 코스닥 상장 성공, 첫 거래후 7일 연속 상한가 행진 벌여 마감종가 2만 6350원 마감
- 2003년 1월 29일,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코스닥상장에 성공했으나 우회상장, 뇌물수수 등의 의혹으로 2009년 4월 28일 상장폐지 결정, 2009년 3월10일 재상장
- 2006년 3월, 벅스는 로커스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했다가 탈락, 2009년 10월에 재상장을 앞두고 있음
- 예당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은 작년 초 6천원대에서 10월에는 2만원에 육박, 300%에 달하는 수익률을 자랑,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재상장이후 2만원을 넘어섬

2-2.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공연보상청구권 징수단체 지정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 징수단체로 지정(9/14일)

-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악의 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매출 상승에 기여함으로 그 일부를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에게 보상하는 권리로,
- 매장과 사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매출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백화점, 쇼핑센터, 프랜차이즈, 외식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음악이 매출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IFPI 2009 보고서)

○ 개정 저작권법(3/25일 공포)에 의해 음악을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 마트, 나이트클럽, 체육시설 등 사업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행사 (9/26일부터)

- 징수 대상 : 국내 3천㎡(약900평) 이상의 사업장(백화점, 쇼핑센터 등)
- 징수 요율 : 기준액은 3천~5천㎡ 미만의 백화점과 객실 수 100~200개 미만의 호텔(콘도미니엄)의 경우 매월 약 7만~8만원 가량으로 예정
- 현재 징수대상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3천㎡ 이하 규모의 사업장으로 징수범위는 좁으며, 징수요율 또한 징수 초기를 감안하여 해외 저작권 선진국보다 다소 낮게 책정

2-3. 불법콘텐츠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10만 네티즌 서명 캠페인' 실시

○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우리가 만든 콘텐츠, 우리의 사랑으로 지켜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클린사이트와 함께 하는 10만 네티즌 서명 캠페인' 실시 (10/30일까지)

- 목적 : 불법 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피해 및 합법적인 다운로드 권장 홍보
- 대상 : 주 타겟을 10~30대 네티즌으로 삼고 10만명 서명 추진
- 참여경로 : 음악 포털사이트 엠넷닷컴, 멜론, 소리바다, 도시락, 벅스 불끈운동 홈페이지(www.불끈운동.kr), 드림콘서트 홈페이지(www.dreamconcert.kr)에서 서명 참여
- 참여자 중 206명에게 LG 아레나 휴대폰(2명), 애플 아이팟 MP3(4명), 아티스트 사인 CD(200명)등 증정

- ※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불끈운동본부) : '07년 발족된 불법음원근절을 위한 민간단체로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불법 유통 저작물 방지 활동 진행

2-4. 인디밴드 아폴로 18, 일본 레이블과 계약하고 일본 진출

- 국내 인디밴드 '아폴로18(Apollo 18)', 일본 준 메이저급 인디레이블 잔향레코드와 계약
 - '09.10월 일본 정식 앨범 발매 예정
 - 앨범 발매에 앞서 9월 21~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잔향레코드 5주년 기념 페스티벌 '잔향제'에서 초청 공연
 - 그동안 '크라잉넛', '오!부라더스', '검엑스', '겔럭시익스프레스', '로켓다이아리', '국가스텐' 등도 일본 공연을 통해 진출한바 있음
- 지난해 일본 뮤직 데이 공연을 통해 일본 진출한 국가스텐은 2008 헬로루키 결선 무대 최종 우승자였으며 아폴로 18도 '09년 8월의 헬로루키 선정 팀임
 - '인디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는 지속적인 홍보 지원과 공연 기회 제공을 통해 국내 음악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주력

- ※ 잔향레코드 : 유럽과 미국의 록 밴드 음반을 라이선스하고 있는 레이블로 포스트록 계열 밴드 'Te'를 비롯해 1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밴드 '9mm parabellum bullet' 등 일본 유명 뮤지션 소속

- ※ 잔향제 : 올해로 5회를 맞는 록페스티벌로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관객이 참석하는 대규모 페스티벌

2-5. 2009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9/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

- '아시아는 하나(Asia i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제 6회 2009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 일시 및 장소 : 9/19일 서울 월드컵경기장
 - 주최 :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및 서울특별시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중음악을 공연하는 아시아 유일의 행사로 '09년에는 아시아 9개국 14개 팀이 참가
 - 대만 '루오즈샹(羅志祥:나지상)', 베트남 '호 응옥 하(Ho Ngoc Ha)', 한국, 일본, 태국 3개국의 멤버로 구성된 남성아이돌그룹 '케이오틱(K-Otic)', 홍콩 '정이건(정이지엔)', 일본 '미히마루지티(mihimaru GT)', 'V6', '각트(GACKT)', 중국 '리위춘(李宇春:이우춘)', 우크라이나 '루슬라나(Ruslana)', 인도네시아 '아그네스 모니카(Agnes Monica)', 한국 2NE1,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빅뱅 등 공연
 - 국내 주요 방송사 및 일본 후지TV 포함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9개국 70개 매체 100여명의 외신기자 등 350여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참석
 - 아시아 최고 신인 가수상 : 투애니원(2NE1) (과거 한국의 샤이니(SHINee), 씨야(Seeya),

- FT아일랜드(FT Island), 일본의 '베리즈코보(Berryz工房)', 태국의 '제임스(James)' 등 수상
- 아시아 스페셜 어워드(Asia Special Award) : 일본의 V6 수상
- 또한 관객들이 공연 동안 안내되는 번호로 응원메시지를 보내 모금(문자 1통당 2,000원 적립)한 기부금을 'SBS 희망TV 팝콘'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NGO 단체 7곳(굿네이버스, 굿피플, 세이브더칠드런, World Vision(월드비전), UNICEF (유니세프), 함께 일하는 재단을 통해 세계 결식아동들에게 전액 기부하는 프로그램 진행

2-6. 2009 글로벌 게더링 개최 (9/18~19일, 서울 난지지구)

-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음악 페스티벌인 '2009 글로벌게더링' 한국 공연 개최
 - 일시 및 장소 : 9/18~19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 참여 아티스트 : 프로디지(Prodigy), 로익숍(Royksopp), 크리스탈 메소드(Crystal Method), 언더월드, EE, 지드래곤, 2NE1, 류승범, 휘황 등 참여
- 한국에서의 첫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인 글로벌 게더링은 누적 관객 3만명 (기획사 집계)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 2001년 영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게더링은 전세계 8개국을 돌며 개최되는 일렉트로닉 음악 페스티벌로 매년 70만명의 관객이 참여하고 있음
 - 기존의 록 페스티벌과 달리 외국인의 관객 비중이 높고 20대~30대 초반의 관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 앞으로 2회 공연이 더 계약되어 있어 2010년 가을에 다시 열릴 예정
 - 그동안 록페스티벌에 치중되어 있던 공연 축제의 장르를 차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

3 기술 동향

3-1. 차세대 음원과 미디어 기기 : 애플인 것과 애플이 아닌 것

- 많은 디지털 음악 관련 업체들이 애플의 아이팟과 iTunes Store를 벤치마킹하고 있음
 - 애플의 아이팟은 전체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6%는 Microsoft, SONY, San Disk 등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9/9일 미디어 이벤트에서 새로 선보인 애플의 신규 아이팟 모델은 향후 포터블 미디어 기기 시장 판도가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 기존의 아이팟 기능과 성능이 향상된 것 외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가격은 기존 230달러에서 15% 하락한 200달러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혀, 아이팟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애플의 전략으로 보이기도 함

- 이미 동영상 기능은 모바일 폰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MP3와 동영상이 합쳐진 기기가 어필할 수 있을지 관심
- 애플은 현재까지 미국 시장점유율 74%를 차지했으나 다른 업체들도 급격히 추격중
 - 세계 1위 휴대폰 회사 노키아의 경우 최근 출시된 블랙베리 폰에 모바일+MP3+동영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이튠즈 스토어에 버금갈 Comes with music 서비스를 영국에서 오픈하였으며 미국 오픈 예정
 - Microsoft(MS)의 경우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Zune HD를 발매. 가격 또한 220달러(26만원)선으로 책정하여, 새로 출시한 애플의 아이팟 터치(399달러)보다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였음
 - Sony는 워크맨 신제품인 X 시리즈를 발표하여 디스플레이와 음질, 조작 등을 개선한 MP3플레이어를 시장 출시한 바 있음
 - 9/9일 소개된 새로운 아이팟이 시장에서 냉담한 반응을 얻게 되어 향후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애플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iTunes LP(신개념 디지털 앨범 서비스) 발표
 - 지난 몇 달간 무수한 소문이 돌았던 카테일 프로젝트의 첫 선을 보인 iTunes LP는 기존 아이튠즈를 통하여 자켓, 라이너 노트, 동영상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음악을 듣는 이용자들이 MP3 보다 모바일 폰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iTunes LP가 CD의 새로운 대체재로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그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s)이 더욱 더 각광 받고 있음. 미국 록 밴드 Nine Inch Nails(NIN)의 경우 Apps를 통해 팬들과 직접 교류 및 음원 서비스 제공



〈그림〉 iTunes 9의 아이튠즈 LP 서비스

3-2. Last.fm 미국 4개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 런칭

- 9/11일, CBS는 디지털 음악서비스인 Last.Fm이 라디오방송국으로 런칭 된다고 발표
 - 10월 5일부터 Last Fm 방송이 CBS의 HD 라디오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
 - CBS라디오 웹사이트 프로그램 채널이 방송되었던 지역인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4개 지역에서 시작
 - Last.fm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의 참여도에 의해 생성되는 주간 차트가 방송의 선곡, 라이브 공연 인터뷰 등에 반영될 예정
 - 인기음악과 아티스트 인터뷰로 이어지는 "Last.fm Discovers"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Last.fm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곡은 주간차트로 엮어질 예정
- 사용자 기반에 의한 음악추천 및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표적인 Last.fm은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송에 반영하여 미디어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 디지털 서비스들로 유저확보가 어려웠던 라디오 채널은 Last.fm 런칭을 통해 HD 라디오에도 새로운 유저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정책 동향

4-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온라인상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제작/배포
 - 홈페이지, 블로그 등 운영 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및 저작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례별로 정리, 안내
 - 해설서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배포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에서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이용 가능
 - 또한 각 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한국저작권위원, 9/18일) 및 각 기관의 요청 시 컨설팅 지원 계획

4-2. '인디뮤지션발굴프로젝트 헬로루키 2009' 10월 공개오디션 실시

- '인디뮤지션발굴프로젝트 헬로루키 2009' 제6회 공개오디션 개최
 - 일시 및 장소 : 9/18일 오후 7시, 홍대 라이브소극장 '상상마당'
 - 8월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통해 신청한 62팀 중 1차 UCC 동영상 평가를 통과한 'Browntain', '리딤(Riddim)', '좋아서하는밴드', '웨스 에이치큐', 'Soul Summit', '노리플라이(no reply)', '데이브레이크', '아스팔트킨트', '게이트 플라워즈', '저기멀리' 등 10개 팀 오디션 참여
 - 이 중 '노리플라이', '좋아서하는밴드', '게이트플라워즈' 등 3개팀 최종 선정

- ‘헬로루키’는 인디뮤지션 발굴 및 공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
 - 국내 음악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음악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09.5월 신설
 - 장르에 상관없이 창작곡을 보유한 밴드 및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참가가능
 - 매달 공모를 통해 1차 UCC 동영상 심사와 2차 공개오디션을 거쳐 최종 3팀 선정
 - 최종 선정 3팀은 EBS ‘스페이스공감 이달의 헬로루키’ 방송출연, 그랜드민트페스티벌 출연자격 (10/24~25일, 서울), ‘연말 결산 공연’(11월) 후보자격이 부여되며 온오프라인과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지원

5 해외 동향

5-1. 프랑스, ‘삼진아웃제’ 수정법안 하원 가결

- 프랑스 하원, 인터넷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안을 285대 225로 통과
 -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할 경우 1차 경고 이메일, 2차 적발시 경고장 발송, 3차 적발 시 최대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으며, 최대 30만유로(약 5억원)의 벌금이나 2년간의 징역형 부과
 - 또 자녀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속을 한 달간 차단할 수 있으며 3750유로(약 660만원)까지 벌금 부과
 - 법안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나 인터넷 회선 설치시 당국이 다운로드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특별 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될 것 예상
-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금지법안은 올 초 프랑스 내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 끝에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사회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헌법위원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려 기각
 - 헌법위원회는 인터넷 접속 차단 권한을 신설 행정기관에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접속 차단의 최종 판정을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 위임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상정
 - 프랑스 상원은 하원에 앞서 7월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앞으로 양원 조정위원회 심의와 상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확정 예정 (9/22일)

5-2. 음반회사의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모델 찬/반 논쟁 점화

- 영국의 Virgin Media와 Universal이 가입자에게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Sony와 EMI는 이러한 모델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Warner Music Group(WMG)의 경우 아직 입장 표명 하지 않은 상태

- Virgin Media & Universal의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모델
 - Virgin Media는 2009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목표로 사용자들에게 음원을 무제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 음원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발표
 -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디지털 음원 서비스로 최근 ISP에 의한 P2P 불법 공유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Universal의 경우 사용자들의 평균적인 다운로드 횟수를 분석한 결과 월 35건 정도,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시행 시 커다란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
- Sony와 EMI는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모델에 반박
 - Virgin이 발표한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결점이 있는 모델로써 P2P를 통한 불법 공유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
 -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까다로운 문제들(저작권, 수익 분배 등)을 여전히 안고 있어 매우 위험함
 - 또한 일반 사용자들은 Virgin & Universal의 입장 대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무제한 다운로드가 오히려 헤비 유저(Heavy User)를 양산할 것으로 예측
- 양 측 모두 뚜렷한 수익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CD판매 감소와 디지털 음악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유는 문화가 너무 다원화 되어 있으며 개개인의 취향과 욕구가 점점 세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의견 수렴이 어렵게 됨
 - 현재 디지털 음악 산업계는 디지털 음원의 무료 제공과 수익모델 창출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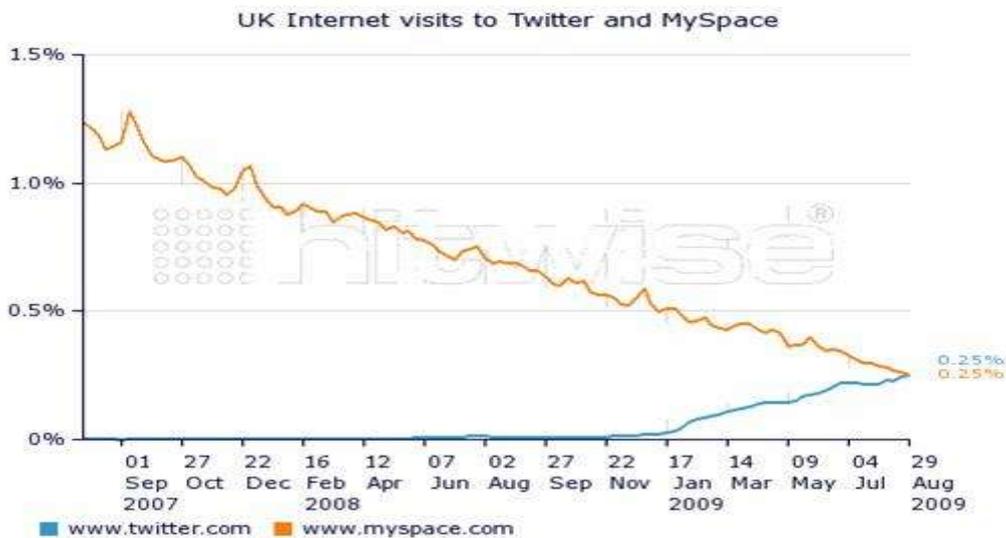
5-3. 최대 Music SNS 사이트 중 하나인 MySpace, 최근 이용 감소 추세

- MySpace는 팬과 뮤지션들이 상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인기를 불러 일으켰으나 compete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08.12월을 기준으로 MySpace의 방문자가 Facebook에 추월당함
- 물론 방문자 혹은 트래픽 순위가 MySpace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는 없으나 Facebook 뿐만 아니라 Twitter 또한 MySpace의 자리를 넘보고 있음



<그림> MySpace와 Facebook의 방문자 수(출처: www.compete.com)

- 이미 영국에선 Twitter가 MySpace보다 더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빈도수도 MySpace보다 높아지고 있음
- Twitter는 현재 사이트 확장을 위해 개인 트위터 페이지에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
- MySpace는 한 때 야후, 구글, 유튜브에 이어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하던 사이트였으나 최근 Twitter와 Facebook에 밀려 Top20위권에 간신히 이름을 올림



<그림> Twitter와 MySpace의 영국 방문자 비율 비교 (출처: Hitwise)

- Facebook은 2009년 현재 회사 가치가 100억 달러에 이르며 올 한해 수익은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나, MySpace의 경우 6억 달러에서 5억 2천만 달러로 14% 하락할 것으로 보임

- MySpace는 기존 뮤지션과 팬들간의 상호 교류가 사이트의 가장 큰 핵심이었으나 최근 Twitter와 Facebook이 이러한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MySpace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
- 최근 MySpace의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 전환 문제도 사용자 감소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5-4. 美 법원, 동영상 공유 사이트 저작권 침해 책임 없음 판결

- 미 연방법원,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중소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베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미국이 지난 1998년 제정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포함해 동영상 제공 사이트들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까지 질 필요 없다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법원은 DMCA에 따라 베오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
 - 유니버설뮤직은 항소예정으로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2007년 미디어그룹 비아컴이 구글을 상대로 10억달러짜리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내년초로 예정된 판결에 이번 사례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베오와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정책이 유사하여 “비아컴과 유튜브의 소송을 맡은 뉴욕법원이 이 판결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예상

별첨 관련 기사 및 자료**1-1. 2009년 9월 2주차 음원 판매 현황**

엠넷 www.mnet.com

멜론 www.melon.com

도시락 www.dosrak.com

벅스 www.bugs.co.kr

싸이월드 www.cyworld.com

2-1. 국내 최대 음악포털사이트 네오위즈벅스 재상장

아시아경제, 09/09/14, 온라인음악사이트 '벅스'가 다음달 코스닥에 재상장된다.

네이버뉴스, 09/09/20, 벅스, 내달초 재상장

한경매거진, 2007, 연예 기획사의 역사

엔터보고서, 09/04/20, 팬텀엔터그룹의 코스닥 퇴출!

2-2.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공연보상청구권 징수단체 지정

헤럴드경제, 09/09/15, 음제협 '공연보상청구권' 징수단체로 지정

아이뉴스, 09/09/15,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음원 사용료 걷는다

굿데이스포츠, 09/09/15, 음제협,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 징수 단체 지정

2-3. 불법콘텐츠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10만 네티즌 서명 캠페인' 실시

전자신문, 09/09/17, 불끈운동본부, 10만 네티즌 서명 캠페인

헤럴드경제, 09/09/16, 불끈운동본부 10만 네티즌 서명캠페인

세계일보, 09/09/16,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 뮤직포털들과 '10만 네티즌 서명 캠페인' 실시

2-4. 인디밴드 아폴로 18, 일본 레이블과 계약하고 일본 진출

굿데이스포츠, 09/09/17, 한국 인디밴드도 해외로 GOGO

머니투데이, 09/09/16, 인디밴드 아폴로18, 10월 日진출..새 한류?

2-5. 2009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헤럴드경제, 09/09/21, 아시아송페스티벌' 높아진 국제적 위상 실감

2-6. 2009 글로벌 게더링 개최

아시아경제, 09/09/20, 프rodu지-로익습-언더월드, 3만 글로벌게더링 관객 홀리다

세계일보, 09/09/21, '글로벌게더링' 첫 개최 성공

3-1. 차세대 음원과 미디어 기기 : 애플인 것과 애플이 아닌 것

PC World, 09/09/11, iPods Still Reign Supreme, but Competition Closes In
 Read Write Web, 09/09/10, Forget the iTunes LP, Apps are the New Album
 PC World, 09/09/10, Live Update: Apple's Rock & Roll Event
 Tech Radar, 09/09/10, iTunes 9 review
 KB Bench, 09/04/15, "소니, 워크맨 신제품 X 시리즈 발표"
 디지털 데일리, 09/09/15, "애플을 잡아라... 무기는 '보는 MP3'"

3-2. Last.fm 미국 4개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 런칭

Billboard Biz, 09/09/11, Last.fm To Launch As Broadcast Stations In Four Markets

4-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배포

국정포탈, 09/09/17,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연합뉴스, 09/09/17,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제작, 배포

4-2. '인디뮤지션발굴프로젝트 헬로루키 2009' 10월 공개오디션 실시

매일경제, 09/09/17, 10월의 인디뮤지션은 누구? `헬로루키` 오디션 개최
 굿데이스포츠, 10월의 '인디뮤지션 부문' 공개 오디션 개최 2009-09-17 16:59:59

5-1. 프랑스, '삼진아웃제' 수정법안 하원 가결

아시아투데이, 09/09/16, 佛 '불법다운' 최고 5억원 벌금 물릴 듯
 세계일보, 09/09/16, 프랑스, 불법 다운로드에 '철폐'
 뉴시스, 09/09/16, 佛, 불법 다운로드 걸리면 인터넷 1년 간 차단

5-2. 음반회사의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모델 찬/반 논쟁 점화

Musicindustryreport, 09/09/12, What is the "New Music" Business Model?
 NMA, 09/09/10, Cover story : Record labels cast doubt on Virgin Media's music model
 Hypebot, 09/09/11, 3 Major Labels Resist Unlimited Download Model

5-3. 최대 Music SNS 사이트 중 하나인 MySpace, 최근 이용 감소 추세

Hypebot, 09/09/14, The steady decline of MySpace
 Erictric, 09/09/13, MySpace Web Traffic Continues To Decline
 Market Watch, 09/09/11, Twitter move could have service accepting more ads
 Technology Digital, 09/09/02, Twitter surpasses MySpace in the UK

5-4. 美 법원, 동영상 공유 사이트 저작권 침해 책임 없음 판결
전자신문, 09/09/16, "동영상서비스, 저작권 침해 책임 없다"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콘(www.wecon.kr)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팀
과장 김도윤(TEL 02-3153-1286 , doyun.kim@kocca.kr)